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소식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발행인 : 박찬일/편집인 : 서창욱/서울시 용산구 이촌 1동 302-75/전화 02)798-3807/전송 02)794-3148 www.kamje.or.kr



회원 현황 및 가입 안내

본 협회회의 단체회원은 2005년 9월 현재 147종(JKMS 및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학술지 115, 의과대학 학술지 11, 기타 학회 학술지 21)이며, 개인회원은 29명이다.

특별회원으로는 광문출판사, 아카데미아, 엠투커뮤니티, 의

학문화사, 중앙문화사, 진기획, 최신의학사, Proquest 한국지사 등 총 8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사무국 (Tel: 798-3807) 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제2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안내

의편집은 1997년부터 학술지 평가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18차례의 평가회를 개최하였다. 평가 후 7년이 경과한 학술지는 재평가를 받게되어 있는 내규에 따라 제2차 재평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이다.

제2차 재평가 대상학술지는 1998년도에 KoreaMed에 등재된 24종의 학술지 중에서 12종이 해당되며, 나머지 12종은 내년 상반기에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1) 행사명 : 제 2차 의학학술지 재평가회

- 개최 일자 : 2005년 10월 14일(금) 오후 4시
- 장소 : 서울의대 본관 2층 교수 회의실

2) 평가 대상 학술지 : 대한내과학회지, 대한대장항문학회지, 대한방사선종양학회지, 대한성형외과학회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대한신장학회지,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두경부외과학, 대한재활의학회지, 대한초음파의학회지,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Kore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3) 평가 내용 : 자체평가 12항목, 실물평가 13항목, 협의회 조사 8항목

4) 평가 위원 : 협의회 평가위원 9명 내외+ 자체평가위원 (학회에서 직접 추천한 1명씩)

5) 제출자료(신청서 1부, 학술지, 자체평가항목) 및 기한

- ① 신청서 1부
- ② 학술지 : 최근 발행호 (투고규정이 포함되어있는 호) 5부
- ③ 자체평가항목 (해당학회 자체 선정 평가위원이 자체평가 12항목 작성)
- ④ 제출기한 : 2005년 10월 1일(토)
- ⑤ 제출처 : 대한의학회내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140-721 용산구 이촌동 302-75)
· Tel : 798-3807, Fax : 794-3148
· e-mail : hbear@kams.or.kr



KoreaMed (www.koreamed.org) 현황

18차에 걸친 의학학술지 평가회에서 2.5이상의 평점을 획득한 118종의 학술지가 KoreaMed에 등재(2005년 9월 현재)되고 있으며 107,800여편의 논문을 검색할 수 있다.

하루 평균 500여명이 본 site를 방문하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KoreaMed를 통해 국내 학술지 정보를 검색하고 있다.



KoMCI (www.komci.org) 현황

KoreaMed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을 대상으로 KoMCI를 통하여 인용색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검색을 통해 자신의 논문이 어느 연구자에게 인용되고 있는지,

자기 논문의 참고문헌 수, 참고 문헌 중 국내 학술 논문수, 인용된 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일부는 자신의 논문을 인용한 논문으로 직접 연결도 가능하다.



기고 SCI가 선호하는 학술지의 조건

허 선(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정보관리위원장)

SCI 잡지 선정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정보는 <http://www.isinet.com/essays/selectionofmaterialforcoverage/199701.html/> 에 자세히 있으므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04년 12월 Thomson ISI 사를 방문하여 그곳의 잡지 선정에 관여하는 편집인들과 토의한 결과를 요약하여 각 회원 단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2005년도 총회 워킹자료집에 있다.

토의 시간에는 잡지의 일반적인 형식에서 세세한 지적(예를 들면 학술지의 영문명 약어 일관성이 없을 때)이 있었고 선정기준에서 total citation 과 impact factor는 고려하지만 immediacy index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 외 학술지 발행기간을 지키는 것, 독창성 있는 내용, 국제적인 저자구성, 독자가 누구나에 따라 무엇이 흥미있는 내용인지 초점을 맞추는 것 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임상의학 담당인 Ms. Kathleen Michael 의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s(JKMS) 에 대한 평을 들었다.

JKMS 가 SCI core 잡지로 선정된 사유는 우리가 아는 몇 가지 기준에다가 새로운 사실이 덧붙여졌다.

선정 사유는

가. impact factor(journal rank), Medicine, General and Internal 분야에서 58/102 (상위 56.8%)

나. 낮은 자기인용도(self-citation rate), 4%

다. 발간 기일 엄수

라. 연구비 수혜 논문의 비율 → 매우 높음

마. 전문(full text)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 여부 → 전문 접근이 쉬움

로 각 항목에서 JKMS 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위 항목 중 자기인용비율, 연구비수혜논문 비율, 전문접근 등은 그동안 SCI 잡지 선정할 때 검토 항목으로 알려지지 않은 내용으로 SCI core 로 선정시 고려하는 내부 검토 사항일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앞으로 SCI 등재를 원하는 편집인에게 도움이 되기 바란다.



2005년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정기 Workshop 개최

2005년도 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한 정기 Workshop이 의협회의 교육연수위원회 주관으로 2005년 11월 30일(수)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주로 신입 편집인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일 시 : 2005년 11월 30일 (수)

■ 일 정

2:00 ~ 2:10 회장 인사-박찬일(의협협 회장, 연세의대)

2:10 ~ 2:40 편집인의 역할

- 조승열(JKMS 편집인, 성균관대의대)

2:40 ~ 3:10 심사위원의 역할 - 한동수(한양의대, 내과학)

3:10 ~ 3:40 의학학술지 평가 기준

- 홍성태(서울의대, 기생충학)

3:40 ~ 3:55 휴 식

■ 장 소 : 서울대학병원 임상의학연구소 1층 강당

3:55 ~ 4:25 우리말 논문 바로 쓰기

- 송영빈(이화여대, 인문과학부)

4:25 ~ 4:55 우리말 의학용어의 기본 원칙

- 황 건(의협용어위원장, 인하의대)

4:55 ~ 5:35 편집인이 알아야 할 통계 처리에 대한 검증

- 박병주(서울의대, 예방의학)



SCI 학술지의 JCR 2004 인용지수

KoreaMed 학술지 중 SCI 등재학술지는 4 종이며, 이 학술지들의 JCR 2004 인용지수는 다음과 같이 보고되었다.

학술지 약어명	2004 Total Cites	Impact Factor	Immediacy Index	2004 Articles	Cited Half-life
EXP MOL MED	541	1.712	0.211	76	3.0
J KOREAN MED SCI	744	0.628	0.070	172	4.0
KOREAN J RADIOL	221	1.500	0.065	31	3.2
YONSEI MED J	572	0.451	0.040	199	4.8



홍성태(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평가위원장)

전 세계에서 연간 쏟아져 나오는 백만 편 수준의 의학논문을 일일이 다 읽어본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 논문을 뒤져 보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과학적으로 비슷한 방법론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여럿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같은 결론을 기술하는 논문의 경우에 있어서의 우선권은 먼저 출간된 논문이 갖는다는 선취권 원칙이 있다.

요즘은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정보제공이 전 세계적으로 가능하여 의학분야의 국제 논문의 제목과 영문초록을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검색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학술지로 인정받기 어렵고 좋은 논문이라도 독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인용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검색정보망에 등재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하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주요 국제적인 학술지들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PubMed와 미국 ISI Thomson사에서 제공하는 SCI를 통하여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KoreaMed를 통하여 영문초록과 저자 서지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전문을 제공하는 국내 학술지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국문으로 발표되는 논문을 외국에서도 쉽게 검색하여 영문초록 뿐만 아니라 도표까지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 동안 국내 학술지가 대부분의 논문을 국문으로 발표하면서도 영문초록과 영문 도표를 작성하여 외국인들도 최소한의 내용을 파악하게 하고 있다. 이는 국문 논문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국제적인 색인정보망인 PubMed나 SCI에 영어가 아닌 언어로 발표하는 학술지를 등재하는데 필요한 요건이므로 국제 색인망에 등재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과학자들 중에서 국내 학술지에 원저 논문을 내고 이를 다시 영문으로 작성하여 외국 학술지에 발표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 스스로 그러한 행위가 아주 능력있는 학자로서의 자질로 생각하고 이를 자랑스러워 하거나 부러워하는 분위기까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는 생의학 학술논문의 통일양식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여기에 중복출판을 금지하고 이차출판의 요건을 명시하여 원저 논문의 선취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분명하게 하였다.

즉 학술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은 원저일 것을 요구하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복출판을 금지하고 있다. 이미 한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을 다시 다른 학술지에 출판하는 이차출판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요건을 갖추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 1) 일차 이차출판 학술지 편집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차출판 학술지 편집인은 일차출판 논문의 원본 또는 사본을 갖고 있어야 한다.
- 2) 일차출판된 학술지의 선취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3) 두 학술지의 독자층이 달라야 하고 이차출판은 축약판으로 충분하다.
- 4) 이차출판은 일차출판의 자료와 해석을 가감없이 성실하게 기술한다.
- 5) 이차출판될 논문의 표지에 이 논문이 이차출판임을 명기하고 원전을 밝혀서 독자, 상호심의회, 색인자 등이 알도록 한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출판은 이차출판이 아니라 중복출판에 해당한다. 저자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러한 명문 규정이 있음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중복출판을 하게 되면 학문윤리에 어긋나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기 쉽다.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저작권을 저자가 아니라 학술지가 가지므로 일차 출판된 학술지의 입장에서는 저작권을 침해당하였다. 이차출판 학술지의 경우 모든 학술지가 투고 시에 원고와 함께 요구하는 서식, 즉 '이 논문을 타지에 게재한 적이 없고 게재 거부되지 않는 한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거짓말이 되고 만다. 이차출판 학술지 편집인이 선취권과 저작권이 다른 학술지에 있는 논문을 알지 못하고 출판하였다면 아무리 독자층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다고 하여도 독자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만다. 사전 상호심의회가 부실하였거나 정보가 부족하여 거짓말에 속은 것이 된다.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게재 승인하였다면 원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논문을 출판하여 학술지의 격이 떨어지고 편집권을 포기한 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나라 일부 학자들이 관행처럼 국내 학술지와 외국 학술지에 이차출판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같은 논문을 중복하여 출판하는 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외국에서도 모두 온라인으로 웬만한 국내 학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중복출판에 대한 국제적인 문제제기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국제적인 학문윤리 위반자로 낙인되는 경우 외국 학술지 논문 한 편으로 생기는 이득에 비할 수 없는 크고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되기 쉽다. **끝**



학술지 평점 현황(1~18차 평가회)

지난 8년간 의편협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학술지 평가회에서 회원 학술지는 아래와 같은 평점을 얻었다
(5점 만점에 2.5 이상은 KoreaMed에 등재됨)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학술지>

2005. 9 현재

학술지명	평 점	평가차수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3.00	3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	4.03	4
Genomics & Informatics	3.10	18
Journal of Genetic Medicine	2.95	6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3.05	5
Kore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3.12	3
Korean Journal of Hepatology	3.04	6
Korean Journal of Pathology	3.39	1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3.55	3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and Pharmacology	3.56	9
Korean Journal of Radiology	3.87	9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2.73	2
가정의학회지	2.74	1
감염	2.90	1
노인병	2.64	18
노인정신의학	2.94	18
당뇨병	3.12	4
대한간질학회지	2.67	17
대한고혈압학회지	1.97	7
대한골관절증양학회지	2.48	7
대한골질학회지(14차 평가회 2.39)	3.27	17
대한남성과학회지	2.91	1
대한내과학회지	3.00	2
대한내분비학회지	2.89	4
대한뇌혈관외과학회지	2.64	별도
대한대장항문학회지	2.55	3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지	2.80	별도
대한류마티스학회지(6차 평가회 2.48)	2.69	9
대한마취과학회지	2.75	1
대한면역학회지	3.02	5
대한미생물학회지	3.18	4
대한미세수술학회지(6차 평가회 2.1)	1.86	8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지	2.64	6
대한바이러스학회지	2.85	4
대한방사선종양학회지	2.82	2
대한법의학회지	2.65	9
대한배뇨장애 및 요실금 학회지	3.01	14
대한불임학회지(7차 평가회 1.37)	2.81	13
대한비뇨기과학회지	2.59	1
대한비만학회지	2.25	7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지(13차 평가회 1.50)	1.51	16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58	4
대한산업외과학회지	2.95	6
대한성형외과학회지	2.82	3
대한세포병리학회지	3.09	6
대한소아내분비학회지(9차 평가회 2.16, 15차 2.18)	2.93	18
대한 소아신경학회지	2.96	5
대한 소아신장학회지	2.65	5
대한 소아혈액종양학회지(7차 평가회 2.15)	2.99	14
대한 소화관운동학회지	2.76	12
대한 소화기내시경학회지(1차 평가회 2.20)	2.85	2
대한 수혈학회지	3.23	6
대한스포츠의학회지(7차 평가회 2.13, 13차 2.39)	2.39	15
대한슬관절학회지	2.8	6
대한신경과학회지	2.75	1
대한신생아학회지	3.10	5
대한신장학회지	3.09	3
대한안과학회지	2.97	9
대한영상의학회지	3.47	1
대한외과학회지(3차 평가회 2.42)	2.78	9
대한외상학회지(7차 평가회 2.0)	1.77	16
대한 위암학회지	2.69	별도
대한 음성언어의학회지	2.25	13
대한응급의학회지(2차 평가회 2.45, 10차 2.28)	3.06	12
대한의료정보학회지(11차 평가회 2.49)	2.63	13
대한의진균학회지	2.96	11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두경부외과학	3.48	3
대한이식학회지(7차 평가회 1.75)	2.87	12
대한임상미생물학회지	2.66	17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지	2.75	1
대한재활의학회지	2.97	2

학술지명	평 점	평가차수
대한정신약물학회지	2.56	5
대한정형외과학회지	3.21	3
대한주산의학회지	2.86	6
대한중환자의학회지(1차 평가회 2.39)	2.78	5
대한척추외과학회지(9차 평가회 2.33)	2.78	13
대한체질인류학회지(12차 평가회 2.29, 15차 2.28)	2.90	17
대한초음파의학회지	3.30	2
대한통증학회지	2.81	5
대한피부과학회지	3.18	1
대한피부연구학회지(7차 평가회 2.45, 10차 2.33)	2.49	14
대한해부학회지	2.92	6
대한핵의학회지	3.21	3
대한혈관외과학회지(6차 평가회 2.49, 8차 2.33)	3.14	13
대한혈액학회지(2차 평가회 2.47)	3.41	10
대한흉부외과학회지	3.21	3
보험의학회지	1.47	5
부인종양(7차 평가회 1.71, 9차 2.11, 15차 2.36)	2.66	18
소아심장 (별도 2.29)	3.14	18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지	2.85	11
소아외과	2.79	5
수면정신생리(14차 평가회 2.45)	2.88	16
순환기(7차 평가회 2.67)	3.18	11
생물정신의학	2.54	17
신경정신의학	3.00	4
예방의학회지(2차 평가회 2.38)	3.47	8
의사학	2.69	12
정신신체의학(6차 평가회 2.42)	2.01	10
천식 및 알레르기	2.76	4
한국간담체외과학회지(14차 평가회 2.24)	3.24	17
한국심초음파학회지	2.89	6
한국역학회지	2.51	0
한국유방암학회지	2.92	14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지	2.39	11
한국혈전지혈학회지	2.18	10
항공우주의학회지(7차 평가회 2.32)	2.69	9

<의대 학술지>

학술지명	평 점	평가차수
계명의대논문집	2.06	10
순천향의대논문집(10차 평가회 2.07)	2.29	12
영남의대학술지(10차 평가회 2.0)	2.78	17
원주의대논문집	2.15	9
전남의대학술지	2.60	9
중앙의대지	2.28	14

<기타 학술지(간호학, 치과학 등)>

학술지명	평 점	평가차수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3.39	18
기본간호학회지	2.59	14
대한전자현미경학회지	2.17	1
대한간호학회지	2.60	9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지	3.16	12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지	2.65	10
대한악안면성형재건의과학회지	2.78	10
대한여성건강간호학회지(13차 평가회 2.29)	2.58	16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지	2.67	9
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지	2.50	11
대한족부외과학회지	2.23	15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3.40	17
대한치과보철학회지	2.60	12
성인간호학회지	2.82	14
아동간호학회지	2.96	14
재활간호학회지	2.72	18
한국산업간호학회지	2.26	16
한국의학교육(11차 평가회 2.01, 12차 2.09)	3.43	14